

TPA · EG 가격급등에 화학섬유 올상

고유가 직격탄에 벤젠 · 카프로락탐 가격 폭등 ... 가동률 조정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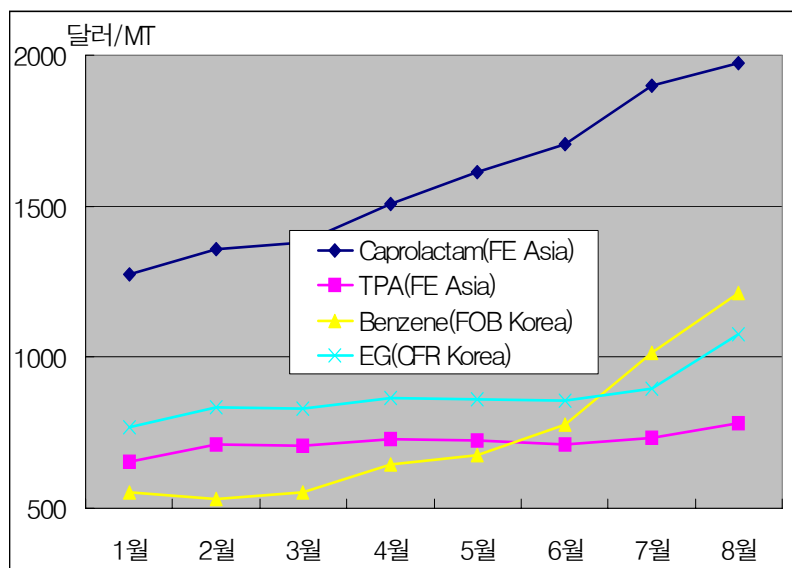
국내 수입원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산 Dubai유가 배럴당 40달러대로 진입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화학섬유 생산기업들은 국제유가상승이 원료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나일론의 원료인 Caprolactam(카프로락탐) 가격은 2004년 초 톤당 1300달러에서 최근 1900달러까지 급등했다. Caprolactam 생산에 투입되는 벤젠 가격이 3월 중순 530달러대에서 8월 초 1200달러대로 2배 이상 폭등했기 때문이다.

Polyester의 원료인 TPA(Terephthalic Acid)와 EG(Ethylene Glycol) 가격도 연초보다 약 20-30% 상승한 상태이다. TPA는 수출가격 기준으로 7월 초 톤당 720-730달러에서 8월 초 750달러대로 상승했으며, 3/4분기 내 수가격도 30-40달러 인상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벤젠 및 화학섬유 원료 가격추이(2004)



일부 화학섬유기업들은 성수기에 90%를 넘었던 공장 가동률을 최근 70-80% 선까지 낮추며 생산량 조절에 들어갔다.

또 가동할수록 적자만 늘어가는 Polyester 원사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아예 철거하고 수익성 높은 고부가 섬유제품이나 첨단 전자재료 생산설비 등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화학섬유 생산기업들은 이미 나일론과 Polyester 등의 제품 가격을 연초보다 20% 정도 인상한 상태이나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제품가격을 추가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화학저널 2004/08/20>